

열왕기상 7. ‘솔로몬’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왕상 7:1-51)

들어가기

열왕기상 7 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의 내 외부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이 이제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짓게 된 일과,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자신의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일을 자기 욕심보다 먼저 생각하고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1.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궁전을 총 \_\_\_\_\_년 동안 건축하여 완성하였습니다. (1-12 절)

1)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7년 (or 7년 반), 자신을 위한 궁전 건축에 13년 총 20년에 걸친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궁전 공사가 성전 공사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이유는? (2 절)

2) ‘솔로몬’ 궁전 건축에 주로 사용된 재료는 레바논 나무와 다듬은 돌들이었습니다.

- 특별히 9, 10, 11 절은 이때 사용된 모든 돌들이 다 ‘귀하다’고 3 번씩이나 강조됨!  
-> 곧 당시 ‘솔로몬’의 궁전은 매우 귀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졌을 것!

3) 솔로몬 왕궁의 주요 건물들과 그 용도는 어떠했을까?

	건물 명칭	사용 용도	대략적 크기
1.	레바논 나무의 궁 (백향목으로 건축)	의식을 행하는 큰 홀, 신하들 및 외부 사신들을 접견하는 접견실, 병기고와 경호원들의 거처	500m * 25m * 16m 3 층 건물
2.	기둥들과 지붕으로만 덮힌 거대한 복도	레바논 나무의 궁과 재판정을 연결하는 통로 (좌우 막힌 벽이 없이 뚫림)	길이 25m 넓이 16m
3.	재판정	‘솔로몬’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 판결하는 장소, 금으로 입힌 상아 보좌가 있음.	
4.	‘솔로몬’의 왕실	‘솔로몬’과 그의 아내들/가족들이 거할 처소	
5.	애굽의 공주를 위한 왕실	‘솔로몬’의 왕실과 같은 크기/같은 형식	
6.	그 외 주변 뜰과 왕궁을 두른 담장들		

2.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두로 사람 ‘히람’에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13-14 절)

1) ‘히람’은 누구인가?

-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단 지파 사람으로 납달리 지파의 한 사람과 결혼하였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됨.
- 이후 두로 사람과 재혼하여 낳은 아들이 ‘히람’
-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에서 놋을 다루는 대장장이기에, 자연스럽게 놋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당대 최고의 대장장이가 됨
-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받고 그를 예루살렘에 파견하게 됨. (역대하 2 장)

2)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두 가지!

- 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인 기술자가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도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에 사용됨!!  
->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일!!
- ②.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 이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큰 축복!!

3. ‘히람’을 통해 만들게 하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은 무엇이었나요? (15-51 절)

1) 예루살렘 성전 현관에 설치된 두 개의 놋 기둥을 만듦. (15-22 절)

- 기둥 자체 높이는 18 규빗 (약 9.54m) + 꼭대기에는 5 규빗(약 2.6m)짜리의 머리돌(장식돌)을 놓아서 대략 총 12m가 됨.
- 기둥 둘레는 12 규빗 (약 6.3m) 로 속은 비어 있었음.
- 기둥 위 머리돌의 장식은 ‘석류’와 ‘백합화’로 마무리하게 함

➤ 참고: ‘석류’와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

- ①. ‘석류’ = 그 내용이 겉모습 보다 더 화려하고 뛰어난 것을 상징  
->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늘 내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
- ②. ‘백합화’ = 순결과 생명을 상징  
-> 곧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그 마음이 늘 생명을 다한 진실과 순결함이 필요함.

- 두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로 정함.
-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  
-> 곧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고 보호하시는 성전임을 의미!

➤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오늘의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자!

2) 놋 바다와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듦. (23-39 절)

①. 놋 바다의 크기 및 구조, 사용 용도

- 크기: 직경이 10 규빗(약 5.3m) 높이가 5 규빗 (약 2.6m) 둘레가 30 규빗 (약 16m)
- 그릇의 두께는 약 15cm 이고 총 2,000 바트의 물 곧 약 72,000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음.
- 이 놋 바다는 열두 소가 동서남북을 향해 3 마리씩 나뉘어 받치고 있었음  
(참고로 ‘소’는 봉사와 희생/헌신을 상징하고. 12는 히브리인들의 완전수 + 12 지파)
- 놋 바다의 용도는 정결의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는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불결한 몸을 씻고 나아가도록 했음.

➤ 따라서 놋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놋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 마리의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보아야 할 것.

②. 놋으로 10 개의 물두멍과 이를 받치는 수레들을 만듦.

- 크기: 직경이 4 규빗 (약 2m), 약 1450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 5 개씩 성전 좌,우에 나누어서 배치함.
- 제사에 사용되는 재물들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손/발을

3) 그 외에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놋과 금으로 만듦. (40-51 절)

- 솔과 부삽과 대접과 그릇들 외 etc.
-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 모든 기구들을 성전이 아닌 요단 평지 ‘숙곳’과 ‘사르단’ 사이에서 만들도록 명함.
  - 성전에선 망치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기에…,
  - 그리고 요단 평지에 진흙이 충분하기에…,

➤ 참고: 하나님은 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놋과 금으로만 만들게 하셨을까?

4) ‘솔로몬’은 성전 공사가 완공되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은과 금과 귀중품들을 성전에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 곧 자신의 것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보관하였다는 것!